



주말 글램핑장 이용객들이 만석이다.

### 정읍 '국민여가캠핑장'



복합놀이시설 '천사히어로즈'

# 캠핑장이야, 관광단지야?

내장산 초입에 2015년 개장  
오토캠핑·글램핑 등 총 82면  
잔디광장·음악분수 등 편의시설  
전국 캠퍼들의 성지로 각광

복합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  
임산물 체험단지·차향문화관 등  
수려한 경관에 볼거리·놀거리 풍성

전국 최고 가을 단풍 명소인 내장산 국립공원 초입에 지난 2015년 8월 개장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이 전국 캠핑족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저수지와 정읍 문화광장 일원 다양한 문화관광 놀이시설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국민여가캠핑장을 찾는 마니아들이 매년 증가하며 전국 최고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특히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지자체-공공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특화된 콘텐츠 운영과 안전·위생 기준 등에서 전문가들의 높은 현장 평가를 받아 '가족 친화 분야'에 선정된 국민여가캠핑장은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이글루 등 다양한 캠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체면적 3만㎡ 규모에 이글루 5면, 일반캠핑 29면, 오토캠핑 31면, 글램핑 6면, 카라반 6면, 자가카라반 5면으로 구성됐다.

카라반(6인용, 4인용)은 작은 여행 가방 모험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절초와 단풍, 라벤더로 디자인해 정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기가자기한 감성 캠핑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카라반은 실내에 TV, 인버터렌지,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식기, 침구류, 바비큐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이글루에는 TV, 에어컨, 침구류, 바닥 난방 시설이 갖춰졌다.

정읍시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사계절 관광지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시설을 확충하여 현재 규모로 발전시켜 왔다.

실제로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6년 개장 초 1만6632명을 시작으로 2017년 1만8920명, 2018년 3만100명, 2021년 4만64명, 2022년 5만6011명까지 증가하다 2023년에는 6만1011명에 올라섰다.

또한, 이용객 분포는 매년 평균 정읍관내 33%, 관외 방문은 67%로 전국에서 캠핑마니아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여가캠핑장이각광을 받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캠핑장 주변에 가족단위(어린이)의 캠핑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과 분수 쇼를 볼 수 있는 음악분수, 실개천·발담금터 등 물놀이 시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내장산 문화광장 '워터파크 음악분수'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가 동된다.

야간에는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하트분수, 버들분수, 곡사분수 등 14종의 분수를 연출하여 캠핑족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실개천은 캠핑장을 따라 580m 구간에 조성되어 캠핑족들이 물놀이를 함께하며 즐겁고 시원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 최고의 실내 놀이시설인 '천사 히어로즈'를 비롯해 각종 기획전이 열리는 정읍시립박물관은 캠핑족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국민여가캠핑장 옆에 2020년 개관한 천사 히어로즈는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가족단위 캠핑족들에게 최고 인기 복합놀이시설이다. 연면적 2192㎡ 규모의 실내 놀이시설은 아트클라이밍, 암벽타기 등과 트램폴린, 다목적 멀티코트, 아케이드게임, 스크린 축구와 야구, 립오브페이스 등 17종 39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잔디광장은 2만4950㎡ 면적으로 일반 잔디보다 두꺼운 물잔디를 심어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들의 텐트와 캠핑카 등으로 잔디가 밀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경관을 크게 개선했다.

여기에 캠핑장 인근 '임산물체험단지'에 '복재문화 체험장'과 '차향문화관' 등은 가족친화형 캠핑장으로서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임산물 체험단지는 임산물을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과 먹거리 판매 및 다채로운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산물을 활용한 입욕제와 차 제품을 이용한 족욕 카페가 운영되며,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차향 문화관에서는 임산물 차를 활용한 다도 체험과 야생꽃차 만들기, 임산물 먹거리 만들기 등 임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또, 임산물 향기 온실에는 사계절 아름다운과 향기가 피어나는 갖가지 허브와 방향식물 등을 식재해 캠핑족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자연 친유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복재문화체험장은 목공체험실, 목재전시실 등으로 초급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9일 가족과 함께 국민여가캠핑장을 찾은 A씨(광주광역시)는 "이곳에서의 캠핑은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자주 이용한다"며 "주변에 아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도 큰 강점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개통한 순환열차는 2.3km 선로에 3량(108명 탑승)의 열차가 국민여가캠핑장 주위를 운행하며 사계절 풍광을 만끽할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시는 정읍시립박물관 옆에 정읍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도 건립 중으로 앞으로 오감형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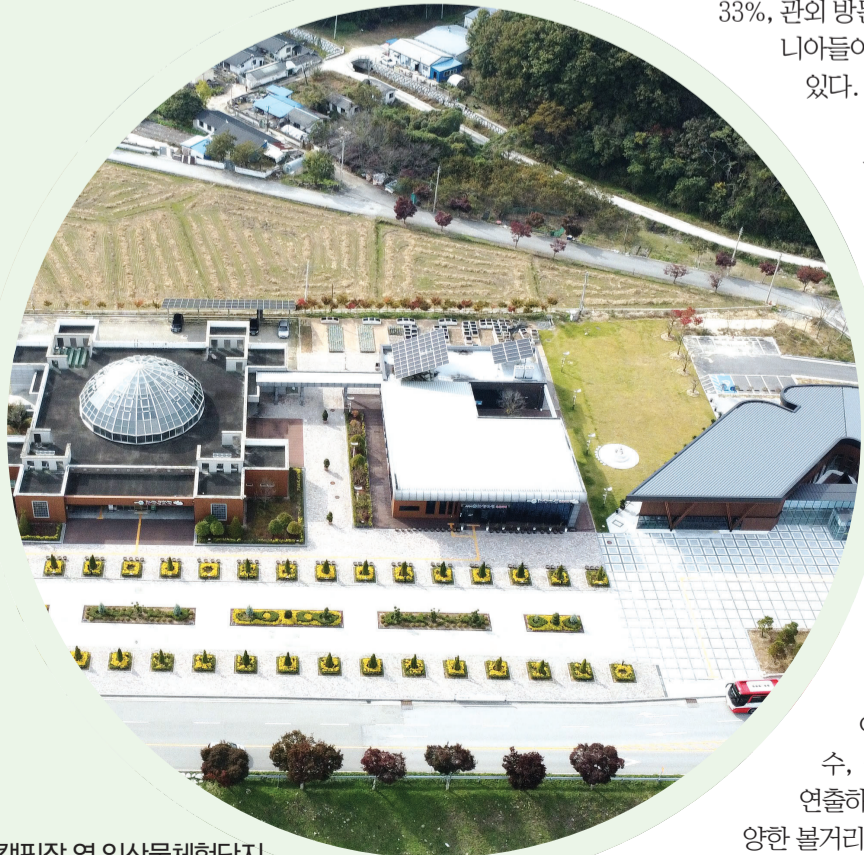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3년 국민여가캠핑장에 가족친화 분야 공공 우수 등목야영장 현판을 수여하고 소개 글을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과 고캠핑 SNS 등에 게재하며 홍보했다.

캠핑장 사용은 매일 25일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국민여가캠핑장장을 통해 진행되는데 경쟁이 치열하여 예약시간이 되면 몇 분만에 예약이 완료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국민여가캠핑장은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찾는 힐링 여행의 1번지로 인기를 받고 있다"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캠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전북일보 임정훈 기자



캠핑장 옆에 조성된 실개천에서 올해 여름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정읍시 제공)



캠핑장 옆 임산물체험단지.